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 포 일	2021. 9. 28.(화) 총 6매(본문 2, 참고 4)				
담당 부서	국제협력총괄과	담 당 자	• 과장 유은원, 주무관 김정례 • ☎ 044)200-5330, 5398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대한민국, 남극 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

- 남극해양생물보존위(CCAMLR) 해양보호구역 지지국 장관급 회의에서 동부남극해와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 의지 밝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9일(수) 화상회의로 열리는 ‘남극해양생물 보존위원회(이하 CCAMLR)* 해양보호구역(MPA) 지지국 장관급 회의’에서 EU,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9개** CCAMLR 회원국과 함께 남극 해양보호 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류와 크릴류 등을 관리

** 대한민국, EU,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벨기에,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번 회의는 CCAMLR에서 논의 중인 ‘동부남극해와 웨델해의 해양보호 구역 지정’ 제안서의 주 제안국인 EU가 올해 ‘CCAMLR 연례회의(2021. 10. 18.~10. 29.)’에서 이 제안서를 채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EU 환경해양수산 장관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특별 초청하여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남극 해양 생태계 보존 관리를 위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2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공동 발의국의 지위에 서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총 3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우리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남극 환경 및 생태계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동부남극해와 웨델해 MPA 제안서의 공동 발의국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해양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CCAMLR 수역 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해양환경보호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의 공존은 불가역적인 국제 흐름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앞으로도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 해양보호구역 지시국 장관급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時/所) '21.9.29(수) 20:00~21:30(KST) / 화상회의(WebEx)
- (참석) 19개국* 장관 및 특사 등 고위급 인사
 - ** 우리나라, EU,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벨기에,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우리측)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수석대표),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교체수석), 유은원 국제협력총괄과장, 오성택 사무관, 김정례 주무관

□ 개최배경 및 의의

- (배경) EU에서 동부남극해('12~EU, 호주 등) 및 웨델해('16~, EU, 호주, 노르웨이 등) MPA 수립 제안서 지지를 동 회의에 해양수산부 장관 참석 요청*
 - * EU환경해양수산장관 서한을 통해 요청, 한-EU 해양수산 장관 양자면담('21.9.13) 시 수락
 - '21년 CCAMLR 협약 채택 40주년을 맞이하여 남극 해양보호 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 재천명 추진
 -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02)에서 촉구하여, CCAMLR는 '04년부터 MPA 논의
- (의의) 지속가능성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임을 고려, 우리나라가 남극 환경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환점으로 활용

□ 세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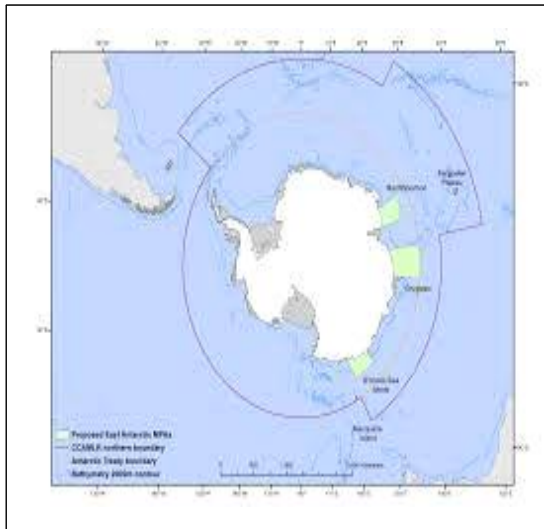
※ 참석 장관들이 남극 해양보호구역 수립 추진을 주제로 각 3분간 연설 예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20:00~20:10	(10)	개회 및 주최자 개회사	EU 환경해양수산장관
20:10~21:20	(70)	각 국 장관 순회 연설(각 3분)	우리나라는 2번째 순번
21:20~21:30	(10)	기념 영상 상영 및 폐회	-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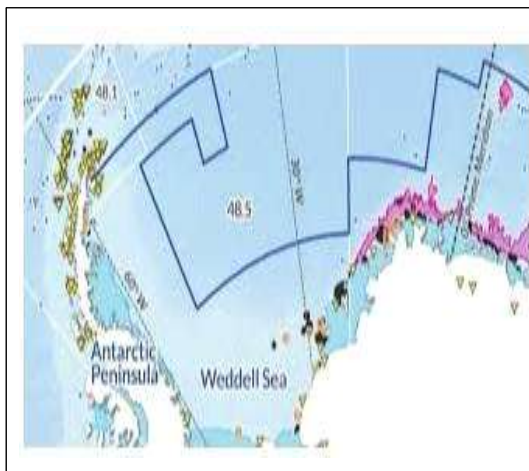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 MPA 개요

□ 동부남극해 MPA



- 제안연도: 2012년(총 97만km²)
- 제안국 : EU, 호주, 프랑스 등
- 특징: 포유류, 조류 및 펭귄 생육지이며, 다양한 심층 해양 동식물 서식
- 목적: 기후변화 영향 측정 및 모니터링
- 제한 및 허용행위: 어업 제한, 과학적 활동 허용

□ 웨델해 MPA



- 제안연도: 2016년(총 197만km²)
- 제안국 : EU, 호주, 노르웨이 등
- 특징: 크릴, 황제펭귄, 코끼리물개 대규모 서식지
- 목적: 생태계 과학 연구
- 제한 및 허용행위: 어업 제한, 과학적 활동 허용

※ 유관기관,^① NGO^② 및 이해관계자^③ 세미나(3회) 추진을 통하여 동 MPA 제안서에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공감대 형성

* ^①외교부, 극지연구소,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②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 등 ^③한국 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 흥진실업, 정일산업, TNS산업(구 선우실업) 등 출어선사

[참고] CCAMLR에서는 현재까지 2건의 MPA 채택(사우스오크니 '09년, 로스해 '16년)

참고 3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개요

□ **설립 및 발효** : : '82. 4. 7(우리나라 가입일 : '85.4.28)

□ **목 적** :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설립

□ **조 직**

○(회원국) 26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국,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네덜란드)

○(사무국 소재지 및 사무국장) 호주(타즈매니아) / David Agnew(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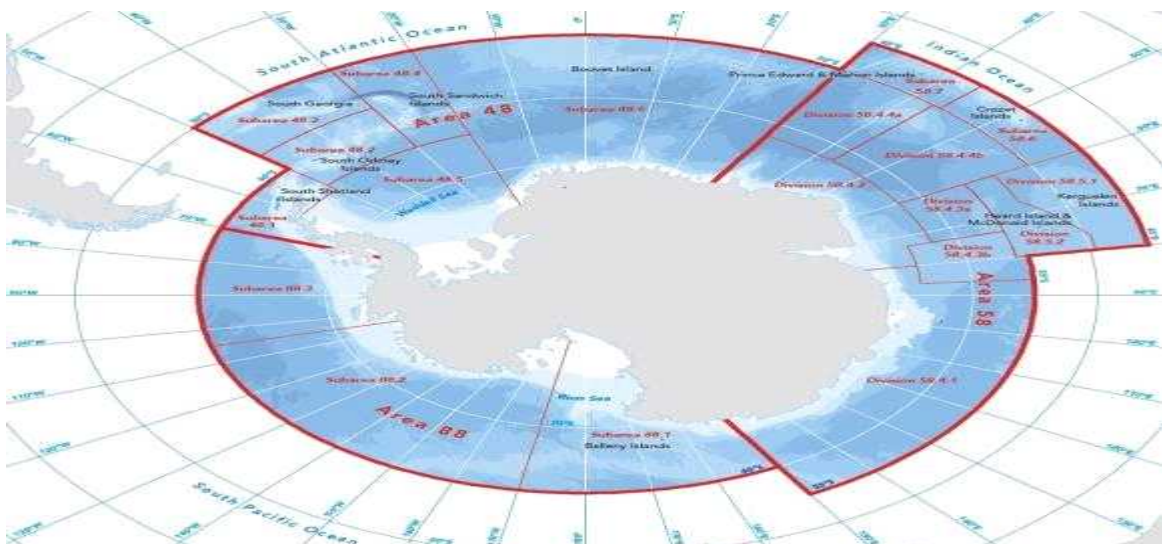
○(의장단) 총회의장은 2년 임기로 회원국별 순번제('21~'22 스웨덴)

□ **쿼터 및 우리나라 관련 현황(2020년 기준, 톤)**

※ 국가별 쿼터 없이 총허용어획량(TAC)을 올림픽 방식으로 조업(매년 12월~익년 2월이 어기)

어종	어획량(톤)	생산액	진출 선사 및 척수
이빨고기	883	247억원	연승선 5척 : TNS산업(구 선우실업, 3척), 흥진실업(2척)
크릴	44,567	445억원	트롤선 3척 : 동원산업(1척), 정일산업(2척)

□ **협약수역**



※ 총 면적 35,716,100 km²으로, 전세계 해양 표면적(약 3억 6천km²)의 10% 차지

□ CCAMLR MPA 수역도

